



## 보건의료체계로 바라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화위복이 될까

집필인 | **이예지 한진옥 김자영 서수인 신소울**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의료 조사연구팀

지난 4월 15일에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66.2%의 투표율로 14대 총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의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은 마스크와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여러 방역 절차를 거치며 참정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세계에서는 이번 총선을 '코로나19 선거 모델'로 주목했다.

신종 감염병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감염 및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보건의료, 특히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 및 재난에 대한 공약 또한 쏟아졌다. 본고에서는 주요 정당들과 경기도에 출마한 240명의 후보자가 어떠한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하였는지 살펴보고, 보건의료 분야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팬데믹(Pandemic)이 선언된 코로나19는 그간 정체되었던 보건의료체계를 재정비할 시점임을 경고하며, 정당들과 후보자들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방향을 고찰할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이번 선거의 공약과 정책들이 정치적 수단에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이후)' 시대에서 보건의료체계의 활로가 되길 기대해본다.

### 01 들어가며

신종 감염병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물리적 거리두기가 지속 권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진행되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66.2%로 1992년 14대 총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총선 투표율을 기록하며 종료되었

! 참조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main/main\\_load.xhtml](http://info.nec.go.kr/main/main_load.xhtml))

다.<sup>1)</sup> 이번 총선은 코로나19의 범유행 속에서 이루어진 전국 단위의 첫 선거인만큼 ‘코로나 총선’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그렇기에 선거유세부터 투표 당일까지 모든 선거 방식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후보자들은 악수 없는 유세를 보였고, 국민들은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와 손 소독을 하고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였으며, 1m 간격으로 줄을 서는 등 여러 절차를 마다하지 않고 투표에 임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체계적으로 진행된 방역 절차와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호평하며 이번 총선을 ‘코로나 선거 모델’로 주목했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건의료, 특히 감염 및 재난에 대한 선거 공약을 다수 내놓았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주요 정당정책과 경기도에 출마한 지자체별 후보자의 보건의료 공약을 파악하여 보건의료 이슈들을 정치적,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약들을 정리하게 앞서 한 국가의 보건의료를 이루는 체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짚어보고(참고1), 이를 바탕으로 주요 정당들의 정책과 경기도내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1 보건의료체계와 구성요소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건의료체계(National Health System)는 국민의 건강을 회복, 유지, 증진시키는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즉,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 하부구조의 5가지 구성요소**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저(하부구조)를 가진다. 의료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화, 의료서비스의 제공, 재정적 지원, 정책 및 관리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있으며, 국가는 각각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보건의료체계 하부구조의 구성요소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참조: 박종혁(2006),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개념과 구성요소.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보건의료체계론 자료.

## 02

### 주요 정당의

### 보건의료 정책

#### ! 참조

주요 정당의 보건의료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공약집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5개 정당에서 내세운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먼저 각 정당의 10대 핵심 공약 중 보건의료 관련 슬로건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및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미래통합당은 “우한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과 “저출산·고령화시대 대비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이었다. 민생당은 10대 핵심 공약에 보건의료 분야가 제외되어 있었으며, 정의당은 “정의롭고 안전한 복지국가 실현”이었다. 국민의당은 “질병예방통제청(가칭), 美 CDC수준으로 개편하는 등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이었다.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정당들이 보건의료체계와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재난 대응을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보건의료체계로 바라본 주요 정당별 정책

5개 정당들의 세부정책들이 보건의료체계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성요소별로 분류해보면 <표1>과 같다.

정당들이 발표한 정책들은 주로 [의료자원의 개발]과 [의료서비스의 제공]이었다. [의료자원의 개발]의 경우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들이 있었는데, 감염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음압병상 및 물자 등의 감염병 대응 자원을 확충하며,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치하겠다는 ‘감염병 대응’에 관한 것이었다. 그밖에는 의과대학 설립 및 정원 확대, 공공인력 확대, 공공병원 설치, 응급 등의 분야별 자원을 확충하겠다는 공공의료 및 기타 정책이 있었다.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는 취약계층,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지원이나 영유아·청소년·여성·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이 다수의 공약이었다. 그밖에 질환별 건강 관련 지원이나 현재 중앙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꼽기도 했다.

[자원의 조직화]는 중앙 및 지방정부 기관의 조직화나 공공, 민간의 보건의료체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는 것, 또는 대학병원 쏠림을 해소하고 1차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겠다는 공약들이 있었다. [자원의 조직화]에서 특징적인 것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는 정당들의 공통적인 공약이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서비스나 의료자원만큼 많이 다루지지는 않았지만 공공성 측면에서 관련기관의 조직화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반면, [재정적 지원]과 [정책 및 관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정책이 적었는데, 기금 조성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법·제도 도입, 건강 관련 규제, 건강영향평가 등이 있었다.

표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정당별 보건의료 정책

※ 5개 정당 중 3개 이상의 정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은 <파란색>으로 표기하였음

영역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b>10대 공약 슬로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및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한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li> <li>저출산·고령화시대 대비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롭고 안전한 복지국가 실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예방통제청(기청), 美CDC수준으로 개편하는 등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li> </ul>
<b>의료자원의 개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의료인력 개발·지원 : <b>전문인력(감염)</b>, 의과대학 정원, 의사과학자, 필수·공공·지역인력 육성·확대 등</li> <li>분야별 자원(시설) 개발·지원 : <b>감염(음압병상 등)</b>, 환경성질환, 농어촌(분만, 응급) 등</li> <li>의료기관 유치·설립 : <b>전문병원(감염), 공공병원(농어촌)</b> 등</li> <li>연구 지원 및 개발 : 감염(백신), 지공경부암(백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의료인력 개발·지원 : <b>전문인력(감염)</b>, 간호사(처우개선) 등</li> <li>분야별 자원(시설) 개발·지원 : <b>감염(음압병상 등)</b>, 응급, 외상, 소방, 기타질환(폐암) 등</li> <li>의료기관 유치·설립 : <b>전문병원(감염)</b> 등</li> <li>연구 지원 및 개발 : 감염(백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의료인력 개발·지원 : <b>전문인력(감염)</b>, 공공의과대학 설립, 소방/재난현장(처우개선) 등</li> <li>분야별 자원(시설) 개발·지원 : <b>감염(음압병상 등)</b> 등</li> <li>의료기관 유치·설립 : <b>전문병원(감염), 공공병원</b>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의료인력 개발·지원 : 공공의과대학 설립, 민간·공공인력 확대, 요양보호사(처우개선) 등</li> <li>분야별 자원(시설) 개발·지원 : 어린이재활, 장애인구강, 장기요양, 노동자 등</li> <li>의료기관 유치·설립 : 지역별 <b>공공병원(재활)</b> 등</li> <li>지역보건기관 확충 : 건강생활지원센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의료인력 개발·지원 : <b>전문인력(감염)</b> 등</li> </ul>
<b>자원의 조직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기관 조직화 : <b>질병관리본부 '청 승격'</b>(지역본부/검역소 설치), 복지부 보건의료 전담 복수 차관제 등</li> <li>보건의료체계 개편·구축·강화 : 특위 설치, 소방헬기 국가 통합관리 등</li> <li>협력체계 구축·강화 : 공공·민간병원 감염병 대응(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부여) 등</li> <li>의료전달체계 재정립 : 의료기관종별, 중증도·질환별, 지역내 의료강화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기관 조직화 : <b>질병관리본부 '청 승격'</b>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기관 조직화 : <b>질병관리본부 '청 승격'</b>, 보건부 단독 부처 설립 등</li> <li>의료전달체계 재정립 : 재난위기대응체계 강화(인프라 소규모화)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기관 조직화 : <b>질병관리본부/안전보건 '청 승격'</b> 시도 건강국, 위원회(건강불평등, 지역건강 참여) 신설 등</li> <li>보건의료체계 개편·구축·강화 : 중앙·지방(공공), 권역·중진료권별 시군·농어촌(응급) 등</li> <li>협력체계 구축·강화 :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 협력 등</li> <li>의료전달체계 재정립 : 의료기관종별, 중증도·질환별, 지역내 의료강화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기관 조직화 : <b>질병관리본부 '청 승격'</b> 등</li> <li>협력체계 구축·강화 : 관련부처·대학·연구기관·제약회사(감염 치료제 개발) 등</li> </ul>

<b>의료서비스의 제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대상 건강 관련 지원 : 취약계층(영양, 감염), 농어업인(검진, 보훈가족(의료비) 등</li> <li>● 생애주기별 건강 관련 지원 : 어린이(영양) 등</li> <li>● 질환별 건강 관련 지원 : 폐(검진) 등</li> <li>●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 장애인, 어르신, 정신질환 등</li> <li>●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li> <li>● 건강보험 및 연금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대상 건강 관련 지원 : 장애인(뇌전증, 보조기기), 난임(사술), 농어업인(검진) 등</li> <li>● 생애주기별 건강 관련 지원 : 청소년(독감접종, 학교검진), 어르신(국가예방접종, 임플란트, 골다공증, 보조기기) 등</li> <li>● 질환별 건강 관련 지원 : 폐(검진) 등</li> <li>● 건강보험 및 연금 : <b>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b>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대상 건강 관련 지원 : 취약계층(영양), 농어업인(여성의료, 보훈가족(의료비) 등</li> <li>● 생애주기별 건강 관련 지원 : 어르신(국가책임제) 등</li> <li>● 건강보험, 연금 등 개편 : <b>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b>, 장애인 연금 인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대상 건강 관련 지원 : 장애인(주치의, 보조기기) 등</li> <li>● 생애주기별 건강 관련 지원 : 영유아(산모(병문간강), 청소년(건강증진 학교), 여성(종합건강), 어르신(건강관리) 등</li> <li>● 질환별 건강 관련 지원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li> <li>●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 장애인, 어르신, 정신질환 등</li> <li>● 한국형 주치의제 시행</li> <li>● 병원급 이상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제공</li> <li>● 건강보험, 연금 등 개편 : <b>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b>, 장애인 연금 인상, 본인부담상한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건강 관련 지원 : 아동청소년(주치의) 등</li> </ul>
<b>재정적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기금화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감염) 조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지역격차 해소) 조성 등</li> </ul>	
<b>정책 및 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도 개정 및 도입 : 여성암관리 등</li> <li>● 관리 및 규제 : 건강위해요인(단속, 정책) 등</li> <li>● 모니터링 및 평가 : 건강영향평가, 건강불평등 개선방안 마련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도 개정 및 도입 : 장애인(뇌전증)</li> <li>● 관리 및 규제 : 흡연(부스 의무화, 금연구역 지정), 검역, 위생용품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도 개정 및 도입 : 장애인(감염, 어르신요양) 등</li> <li>● 관리 및 규제 : 민간 실손의료보험금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도 개정 및 도입 : 장애인(감염, 탈시설 어르신요양), 상재생산 권리보장, 민간의료보험 총액 관리 자율제도 등</li> <li>● 관리 및 규제 : 미용·성형 산업 등</li> <li>● 모니터링 및 평가 : 건강영향평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도 개정 및 도입 : 전염병방지 등</li> </ul>
<b>경기도 핵심공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간 진료 경기도형 <b>어린이</b>병원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모자</b>보건지소 건립 및 운영시간 확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어린이</b>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도입</li> </ul>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별 홈페이지(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10대 정책, 정책공약집 및 정당 보도자료.

## 주요 정당별 경기도 보건의료 정책

각 정당에서 드러낸 공약 중,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살펴본다. 더불어민주당은 '24시간 진료 경기도형 어린이병원 설치'였으며, 미래통합당은 '모자보건지소 건립 및 운영시간 확대 등'으로 두 정당은 [의료자원 개발]에 대한 정책을 꼽았다. 정의당은 '어린이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도입'으로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공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종합하면 3개 정당의 경기도 보건의료 공약은 모두 '영유아·어린이'와 관련된 정책이었다.

## 03

### 경기도 지역별 보건의료 공약

#### ! 참조

경기도 지역별 보건의료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후보자 선거공보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보건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약만을 포함하였으며, 슬로건 형태의 광범위한 공약, 스포츠센터·산책로 등의 생활체육 관련 공약, 교육, 안전, 사회복지 중심의 공약 등은 제외함.

### 보건의료체계로 바라본 경기도내 보건의료 공약

경기도 59개 지역구에서 출마한 240명의 후보자들이 내세운 보건의료 공약을 보건 의료체계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지역구를 시군 단위로 통합하여 27개 지역으로 나누었으며, 공약을 분류·요약한 내용은 <표2>와 같다.

[의료자원의 개발]의 경우 대다수의 지역 후보자들이 음압병상, 방역물품 등의 자원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응급·요양·치매·장애인재활 등과 관련한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분야별 자원·시설 확충). 27개 지역 중 19개 지역에서 도입 또는 시립의 공공의료원을 설치하고(공공병원 유치·설립·이전), 18개 지역에서 대학종합병원이나 감염병전문병원, 어린이전문병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종합·전문병원 유치·설립·이전). 과반수의 지역에서 보건소와 같은 '지역보건기관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으며, '보건의료인력 육성·확충'이나 '연구·의료단지 조성'과 같은 공약이 있는 지역은 절반 이하였다.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진료비, 산후조리비 등의 지원이나 건강보험료 완화와 같은 '의료비·건강보험 지원'과 특정 대상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주치의제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많은 지역들에서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과반수의 지역에서 건강검진·예방접종의 대상과 종류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으며(건강검진·예방접종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등의 위생용품을 공급하겠다는 '보건의료 물자 지원'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났다.

정당들의 공통적인 공약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 지역 후보자들이 제시한 [자원의 조직화]의 공약이었다. 반면, 평택, 화성, 포천·가평은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구축, 동두천·연천은 군 의료시스템 개편, 안산은 특수계층에 대한 지역의료체계 확충에 대한 지역 내 공약을 제시했다.

[재정적 지원] 공약은 일부 지역에 한했다. 수원, 안산, 남양주 후보자가 감염병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으며, 성남에서는 공공의료를 단계적 무상화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정책 및 관리] 공약은 감염병 관련 법·제도 정비와 각 후보자 소속의 정당 정책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안산에서는 보건소 및 약국을 24시간 설치·운영하는 안산24시법과 특정 지역 발전소 분진 피해에 대한 주민건강조사 실시를, 의왕과천에서는 의왕시 노후 공업시설의 인근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지역 공약을 내걸었다.

지역별로 후보자들이 언급한 공약의 비율을 살펴보면 후보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으며(수원,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용인, 화성 등), 그 외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자원의 개발]과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공약이 국한되는 경향을 보였다(하남, 파주, 광주, 양주 등). 또 다른 일부 지역은 후보자들이 특정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세웠다. 의왕과천의 경우 의료자원이나 정책에 있어 후보자들이 주로 같은 공약을 내세운 형태를 보였다. 김포의 경우 후보자들이 다른 공약에 비해 종합·전문병원을 유치·설립·이전하는데 공통적인 공약을 내걸었으며, 포천가평의 경우에도 공공병원 유치·설립·이전에 후보자들의 관심이 있었다.

표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지역별 보건의료 공약

※ 지역별 총 후보자에서 각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의 비율에 따라 차등 표기하였음

0%~20% 20%~40% 40%~60% 60%~

영역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동두천 연천	안산	고양	의왕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가평	여주 양평
(총후보자수)	20	17	8	14	17	10	10	3	16	19	4	4	13	4	7	3	4	16	7	4	3	8	11	6	3	4	5
의료 자 원 의 개 발	종합·전문병원 유치·설립·이전																										
	공공병원 유치·설립·이전																										
	지역보건기관 확충																										
	연구기관 설립· 의료단지 조성																										
	분야별 자원· 시설 확충																										
	인력 육성·확충																										
의 료 서 비 스 의 제 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비· 건강보험 지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확대																										
	보건의료 물자 지원																										
자원의 조직화																											
재정적 지원																											
정책 및 관리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지역구 후보자 선거공보.



## 04

### 보건의료 이슈에 따른 공약 현황

주요 정당들과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건의료체계로 살펴보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의료자원의 개발]과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의 공공성이 대두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존의 보건의료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현 시점에서 이번 총선을 바라보면 국민들이 아닌 보건의료체계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몇 가지 이슈들이 눈에 띄었다. 그 공약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자(표3).

#### 공공의료 강화

주요 정당들과 후보자들이 다룬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한 공약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의료자원의 개발]과 [자원의 조직화]로 분류되었다. [의료자원의 개발]에 대해서는 공공의과대학 설립, 공공의료인력 확대,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등의 공약이 있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및 요양, 치매, 재활 등 공공시설·자원에 대한 공약과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지역보건기관을 확충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자원의 조직화]로는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거나, 시도별 건강국을 신설하는 공약이 있었으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공공의료체계, 권역별/중진료권별 보건의료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관련한 공약이 제시되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이나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관련한 공약들이 공공의료의 강화와 관련한 내용이 었다. 그밖에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전 국민 주치의제 등과 같은 중앙 차원의 보건 의료사업이나 서비스들이었으며, [재정적 지원]은 공공의료의 단계적 무상화가 있었다. [정책 및 관리]는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단속이나 정책, 금연구역 지정, 의료민영화 반대 등의 공약이 제시되었다.

#### 감염병 및 재난 등의 위기 대응

코로나19 속에서 이루어진 전국 단위의 첫 선거만큼 감염이나 재난에 대한 보건의료 공약 또한 쏟아졌다. 주요 정당들과 후보자들은 공공의료 강화와 같이 [의료자원의 개발]과 [자원의 조직화]에 대한 감염 관련 공약들을 주로 내놓았다. [의료자원의 개발]의 경우 역학조사, 의사과학자, 검역인력 등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병원 내 음압병상 확충, 위생 및 방역물품의 비축과 감염예방관리센터, 재난안전센터 등을 설치하겠다는 공약들이 있었다. [자원의 조직화]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지역본부 및 검역소를 추가 설치하거나 긴급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되었다. 또한 재난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민간병원의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책들도 보였다.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위생용품과 방역 지원을 확대하거나, 감염병 무료 접종, 감염예방 및 진단을 위한 원헬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들이 있었다. [재정적 지원]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피해지원, 위기관리 등을 위한 감염병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것이었으며, [정책 및 관리]로는 감염 및 검역법 개정, 물자 비축에 대한 법제화 등의 공약이 있었다.

표3

보건의료 이슈에 따른 공약 현황

구분	보건의료 이슈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및 재난 등의 위기 대응
의료자원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인력 개발·지원: 공공의과대학 설립, 필수 공공·지역인력 확대 등</li> <li>• 의료기관 유치·설립: 도립·시립의 공공병원, 공공요양병원, 재활전문병원, 어린이전문병원, 보훈병원, 공공병의원 등의 유치·설립·이전</li> <li>• 분야별 자원(시설) 개발·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요양, 치매, 재활 등), 공공제약사, 응급의료센터 등 확충</li> <li>• 지역보건기관 확충: 보건소, (모자)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확충</li> <li>• 연구기관 설립·의료단지 조성: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인력 개발·지원: 감염병 전문인력(역학조사관, 의사과학자, 검역인력 등) 육성 및 확대</li> <li>• 분야별 자원(시설) 개발·지원: 음압병상 확충, 마스크 등 위생용품/방역물품 비축, 감염예방관리/재난안전센터 등 설립</li> <li>• 의료기관 유치·설립: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및 설립</li> <li>• 연구 지원 및 개발: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 감염병 관련 R&amp;D 집중 투자</li> </ul>
자원의 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관 조직화: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시도 건강국, 위원회(간강불평등, 지역건강, 참여) 신설 등</li> <li>• 보건의료체계 개편·구축·강화: 중앙-지방(공공), 권역·중진료권별 보건의료체계 강화, 시군·농어촌(응급, 분만) 보건의료체계 구축, 소방헬기 국가 통합관리 등</li> <li>• 협력체계 구축·강화: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책임의료기관 특정 상황 시 역할 부여 등</li> <li>•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기관 종별 역할 강화, 중증도·질환별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지역내 의료체계 강화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관 조직화: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및 지역본부/검역소 설치, 긴급상황실 24시간 운영 등</li> <li>• 보건의료체계 개편·구축·강화: 재난위기대응체계 강화(인프라 소규모화) 등</li> <li>• 협력체계 구축·강화: 공공-민간병원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관련부처-대학-연구기관-제약사 치료제 개발 협력체계 구축 등</li> </ul>
의료서비스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주치의제(국가책임제), 건강인센티브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 방역 지원 확대, 감염병 무료 접종확대, 감염병 예방 및 진단 원헬스 시스템 구축</li> </ul>
재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의료 단계적 무상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방역, 피해지원, 위기관리 등을 위한 감염병 관련 예산 지원 및 확대</li> </ul>
정책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 및 규제: 흡연, 음주, 영양 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단속 및 정책, 흡연 부스 의무화, 금연구역 지정, 공공병원 내 성분명 처방 의무화, 의료민영화 반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도 도입: 감염병, 검역법 관련 개정, 물자 비축을 위한 법제화 등</li> <li>• 관리 및 규제: 위생/방역물품 수출 금지, 코로나19 부실대응 국정조사 실시 등</li> </ul>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별 홈페이지(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10대 정책 및 정책공약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지역구 후보자 선거공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정당들과 경기도내 후보자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보건의료체계의 5가지 구성요소로 살펴보았다. 정당 정책은 [의료자원의 개발]과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공약이 가장 많았으며, [자원의 조직화]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겠다는 공약이 공통적이었다. 또한 공공의료 측면에서 관련기관의 조직화나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정책적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 다른 특징은 정당들이 경기도에 제시한 정책은 모두 영유아·어린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경기도 지역 후보자들의 공약 또한 정당 정책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의료자원의 개발]과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공약을 기본적으로 내걸고 있었다. 그러나 세부 공약들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후보자들이 소속 지역의 특성(병원의 유무, 농어촌·도농 지역 등)이나 공약의 실행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병원 설립’, ‘진료비 지원’ 등 눈에 보이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밖의 분야 또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의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로 영향을 미치는 공약들뿐이었다.

종합해보면 이번 총선에서 다뤄진 보건의료 공약들은 의료서비스, 의료자원과 같은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약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였다.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이나 정책은 여전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밀려나있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질병관리‘청’과 같이 새로운 정책이 아닌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정책을 공약으로 포장한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공약은 지역 자체에 대한 특징 없이 허술하거나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전략 없이 슬로건 수준에 그쳐있어 실행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에 주목해야할 이유는 보건의료이슈가 계속 다뤄지면서 기존에 관망되었던 보건의료체계를 전환할 정책들을 짚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에 공공의료발전종합대책이 수립된 이후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변화들이 있으면서 후보자들도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관심을 보였다. 또한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 진행된 선거만큼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조직의 변화와 자원의 개발에 대한 많은 공약들이 세워졌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라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각 국가들은 기존의 보건의료체계에서 겪지 못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그간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던 보건의료체계 구조와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모든 정책과 변화들에 시행착오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보여진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들이 정치적 수단에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이후)’ 시대에 필요한 보건의료체계의 활로가 되길 바라본다.

## 06

### 참고문헌

국민의당(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언행일치, 안철수!’

더불어민주당(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합니다’

미래통합당(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미래통합당 정책공약집(시·도 공약), ‘내 삶을 디자인하다’

미래통합당(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미래통합당 정책공약집(중앙 공약), ‘내 삶을 디자인하다’

민생당(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민생당 정책공약집, ‘민생보감-‘오로지 민생’ 민생이 먼저다’

민생당(2020.04.06.) 보도자료, 코로나19 완전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 공약 ‘보건부’ 설립,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민생당(2020.04.13.) 보도자료, 선대위 정책본부, 민생당의 삼삼한(3+3) 시니어공약

박종혁(2006),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개념과 구성요소.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보건의료체계론 자료

정의당(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2020 정의로운 대전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main/main\\_load.xhtml](http://info.nec.go.kr/main/main_load.xhtml))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지역구 후보자 선거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10대 정책



해당 이슈브리핑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집인 | 한진옥(조사연구팀 책임연구원) 문의 | 031-738-0281